

나의 '빌딩' 메일을 본 교수님의 생각은?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수강신청 기간 교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 중 하나는 ‘빌널’이다. ‘빌널’은 ‘빌어서 넣기’의 준말로, 정원이 다 차 수강신청에 실패한 학생이 해당 과목 담당 교·강사에게 메일을 보내 수강생 명단에 자신이 들어가도록 부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학생들은 ‘빌널’에 대해 무엇이 궁금할까. 이들의 ‘빌널’ 메일을 받는 교·강사들의 속사정은 뭘까. 각기 다른 단과대학 소속 교·강사 3명을 통해 이를 알아봤다.

수강신청 기간 '에브리타임'에는 수강신청에 실패한 학생들의 '빌널'과 관련한 문의 글이 많이 올라온다. 실제로 '에브리타임'에 '빌널'을 검색하면 수많은 게시글이 검색되는데, 이번 학기 수강신청일인 지난 달 8일부터 28일까지 '빌널' 관련 글은 총 139개였다.

검색된 글은 특정 과목 교·강사가 ‘빌넵’ 메일을 받아주는지, 언제 메일을 보내야 하는지 물어보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메일 발송 시기와 관련한 문의가 많은 것은 문의 시기에 따라 교·강사 입장에서 늦거나 이르다고 생각해 학생의 수강 요청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신문은 학생들의 ‘빌넵’ 메일에 대한 교·강사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메일 발송 시기와 관련해선 모두 생각이 달랐다. A 교수는 전학년 수강신청일, B 교수는 정정기간 전에 메일을 받는 것이 낫다고 했다.

Q 개인적으로 언제 ‘빌널’ 메일을 받길 선호하는가?

“전학년
수강신청일”



A교수

“수강변경
(정정기간) 전”



B교수

“정정기간도 나쁘진 않다”



C교수

교수 별 선호하는 메일 발송 시기가 달랐으나 대체로 개강 전을 선호했다.

C 교수는 “정정기간도 나쁘진 않다”고 답했다.

대체로 개강 전 메일을 보내는 것이 원활한 수업 계획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B 교수는 “수강변경 전에 받으면 사전에 증원 요청을 할 수 있어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B 교수는 “정정기간에 넣어주는 것도 상관없다”면서 “다만 개강 이후에 혹시 교실이나 공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좀 예측가능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생각해본 점”이라고 덧붙였다.

학생의 수강신청 의지를 메일 발송 시기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기도 했다. A 교수는 “해당 학년 수강신청일에 실패하고 바로 연락하는 것보다는 전학년 수강신청일까지 (수강신청) 노력을 해보고서 (메일을)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말했다. 정정기간에 메일을 보내는 것에 관해 A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이 학생이 혹시 다른 과목 수

강신정을 시도해 보고 (신청이) 안
돼서 연락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
각이 든다”며, 이어 “밤중에 연락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정정기간이 끝날
쯤에 연락하면 그때는 늦었다는 생
각이 들긴 한다”고 덧붙였다.

메일 내용에 관해서도 교·강사들은 학생의 태도와 진정성을 중요시했다. A 교수는 “정정기간까지도 신청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을 (메일 본문에) 쓰면 더 좋게 보인다”고 말했다. C 교수도 “발송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메일 내용”이라면서 “해당 수업 인원 제한을 풀면서까지 듣고 싶은 이유를 잘 써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C 교수는 “수업의 특정 주제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거나, 수업 방식 등을 언급하며 ‘어떠한 역량을 기르고 싶다’ 등의 사유를 잘 쓰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교수님들을 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모두 같은 상황이라도 교

수, 학과별로 생각이 다를 것임을 밝혔다. A 교수는 “정해진 것은 없으니까 선호도의 문제이긴 하다”고 했고, B 교수도 “교원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다”고 했다.

매 학기 원하는 강의를 듣지 못하는 학생이 속출하는 현상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기도 했다. B 교수는 희망과목담기 제도와 실제 강의 개설과의 연계성이 더욱 밀접해져야 한다는 취지로 “‘희과담’을 사실상 사전 수강신청 수준으로 높이면 이런 일이 덜 발생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현 제도의 개선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을 언급했다.

또 B 교수는 ‘빌넌’으로 강의를 신청했지만 정정기간에 해당 수업을 철회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증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후 정정기간에) 수강변경을 불허하는 방식을 병행하면 좀 더 예측 가능한

수강신청이 되리라 의견을 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전공과목과 달리 교양과목의 경우 '빌넵'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관계자는 "졸업에 문제가 있을 때만 (수강신청) 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학칙상 규정에 정해져 있어 따로 편의를 봐주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여기서 '졸업에 문제가 있는 경우'란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을 그 학기에 듣지 못하면 해당 학기를 마치고 졸업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 학기 수강신청 기회가 보장되는 저학년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학교 교·강사 3명의 ‘빌낱’에 대한 생각은 ‘매일 발송 시점’에 관해서는 모두 달랐다. 전학년 수강생 청일 이후 방중에 메일을 보내는 것이 학생 입장에서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메일 내용이었다. 수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며 꼭 듣고 싶은 이유를 설명하면 교·강사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빌넵’할 상황을 면하는 것이다. 학생마다 원하는 모든 과목을 들을 수 있다면 캠퍼스 분위기는 더욱 훈훈해지겠지만, 이는 불가능함을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 좀 더 면밀한 강의 수요조사에 힘써 더욱 현실적인 강의 개설을 계획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빌넵’이란 우회적 방식을 거치지 않고도 충분히 모든 과목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 2023 세계평화주간 행사 안내

경희대학교 국제C 후마니타스칼리지

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는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여 아래와 같이 세계평화 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생태 시네마 상영회 및 토크 콘서트

개발과 성장 중심의 현대문명이 자연에게 가한 파괴적 결과들을 성찰하고, 인간과 문명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태환경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듣는다.

주 제	자연, 인간과 문명의 공존을 묻다
상영영화	〈수라〉(2022, 황윤 감독)
대상	경희대학교 재학생 및 구성원
상영일시	2023. 09. 21.(목) 10시, 12시, 2시(3회 상영)
상영장소	멀티미디어관 112호
토크콘서트일시	2023. 09. 21.(목) 오후 4시 30분
토크콘서트장소	멀티미디어관 112호

※ 자세한 사항은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및 후마니타스칼리지 공지사항 참조

Peace BAR Festival 2023 카드 뉴스 공모전

공 모 명	세계평화 카드 뉴스 공모전
주 제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모 집 대 상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재학생 중 개인 또는 팀(4인 이내) ※ 다른 주제일 경우, 개인과 팀 중복 신청 가능, 외국인 유학생 참여시 우대
모 집 기 간	2023. 09. 04.(월) ~ 09. 17.(일)
발표 및 시상	2023. 09. 21.(목) ~ 09. 22.(금)
접 수 방 법	이메일 접수 : khugwriting@khu.ac.kr
제 출 서 류	① 참가신청서 외 ② 카드 뉴스 작품
시 상 내 역	※ 심사 결과에 따라 수상 규모와 시상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대상(1팀)	상장 및 부상(50만원 상당)
• 최우수상(1팀)	상장 및 부상(30만원 상당)
• 우수상(3팀)	상장 및 부상(20만원 상당)
• 장려상(4팀)	상장 및 부상(10만원 상당)

※ 자세한 사항은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및 후마니타스칼리지 공지사항 참조